“상품 하자발견 땐 사진 등 증빙자료 남겨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상담 건수 지난해 2배 증가
인터넷진흥원, 가정의 달 안전한 인터넷쇼핑 당부

#1. A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했다. ‘실물이 상품사진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으나 그러려니 넘겼다. 하지만, 꽃바구니는 약속된 날짜보다 4일이나 늦게 배송됐고, 상품도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실물과 다르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B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미리 사둔 조립형 기차놀이세트를 어린이날에 맞춰 자녀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자녀가 기차를 조립하다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사고의 원인을 조립 부속품의 마감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상품을 개봉·사용, 수령 1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입을 위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반품과 환불 등 분쟁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1일 온라인쇼핑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784건으로 전년 5604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1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화상담 7234건의 50.7%가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우선 KISA는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는 판매상품에 대해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꽃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상품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실물과 동일·유사한 사진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의 경우 구매 전·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 등을 남겨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화(1661-5714)나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상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권현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인터넷쇼핑이 증가하면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도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판매자 모두에게 시간·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니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농업용수 안전 공급·풍년 기원 백파제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정읍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전북 정읍 낙양취입수문에서 안전영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기원하는 백파제 통수식(사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91회째를 맞는 백파제 통수식은 한·수해로 어려움을 겪던 해당 지역에 운암제 축조 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백파제는 김제·정읍·부안 간선수로 680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최규성 사장은 “기후변화에도 안심하고 편하게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로 시기·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심해지는 점을 고려해 저수지 물 채우기, 물길잇기 등 수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신임 사장 15일 선출

한전KPS 신임 사장이 오는 15일 선출된다.

1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3년의 신임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날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도 함께 선출한다.

신임 사장 후보는 강재열 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과 김범년 전 광양그린에너지 대표이사다.

강재열 부회장은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김범년 전 대표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부사장)과 엔지니어링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한국발전교육원 원장과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장을 역임한 박흥실 전 원장과 ㈜영무토건 이사, 금강공업 광주사무소장을 지낸 배일진 전 이사가 후보로 올라왔다.

감사 후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상임이사와 ㈜코리아스픽스 원장을 역임한 문태룡 전 이사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본격 운영

불공정거래 상담·컨설팅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상담 ▲법률 컨설팅 지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선도기업(대기업)과의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자문단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콘진 역삼분원 5층에 위치한 센터는 ▲공정상생협의체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법제도 정책 자문협의체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상생협의체는 산업구조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실제 지난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원이상 기업이 산업계 전체 매출액의 86.1%를 차지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외위탁자산 관리 운용사 3개 기관 선정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공단 해외위탁자산을 관리할 위탁운용사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 자산운용사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외주식 Active형 2개, 해외채권 FoETF형 1개의 위탁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

해외주식 Active형에는 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채권 형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각각 선정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기금의 수익다변화, 위험분산 차원에서 올해에도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운용사들에 대해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여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사학연금의 해외증권 운용규모는 3조2000여억원으로 이중 해외주식이 2조2000여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8개 기관과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4개 기관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심정근(맨 오른쪽) aT 화훼사업센터장이 플라워트럭 3기로 선정된 ‘꽃길만 걸어요팀’(박태연·박규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aT, 청년창업 지원 ‘플라워트럭 3기’ 사업자 발대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1일 꽃 생활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플라워트럭 3기’ 사업자를 선정,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라워 트럭’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차량 1대를 시범사범으로 시작해 올해 2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꽃을 싣고 다니며 판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창업가는 창업 전 사업경험을 쌓는 게 목표다.

화훼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플라워트럭 창업가로 선정되면 차량(1t 탑차)과 기본 유류비, 전문가 멘토링,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3기로 선정된 ‘제이스가든팀’은 직접 만든 테라코타에 심은 분화를 중점으로 판매에 나선다. 또 자매로 구성된 ’꽃길만 걸어요팀’은 미니꽃다발과 드라이플라워 엽서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꽃집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동시에 꽃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